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지난 주 (8/2/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96.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8월 9일 (668호)

1:6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최성호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5:16-17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적대관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8/9/26	8/16/26
윤원신	장헬렌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모든 율법의 결국은

모든 율법의 결국은 사랑입니다. 반대로 율법주의는 정죄와 판단으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빠져 나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마치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이비 교주들을 주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이비교주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누구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기에 교묘하고 간사한 것입니다. 마치 실험실의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자 그 안에서 빠져 나올 생각을 안하고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격적인 태도를 내려 놓고 굉장히 강경하게 무섭게 직설적인 화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외치는 독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종노릇이란 단어는 굉장히 썩어 들어간 단어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고 살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의 좁은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게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는게 아니고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천년전이나 지금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실천을 보여 주기 보다는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러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인격의 성숙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 의식이 수준 미달이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했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던 한 시인의 시를 나누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